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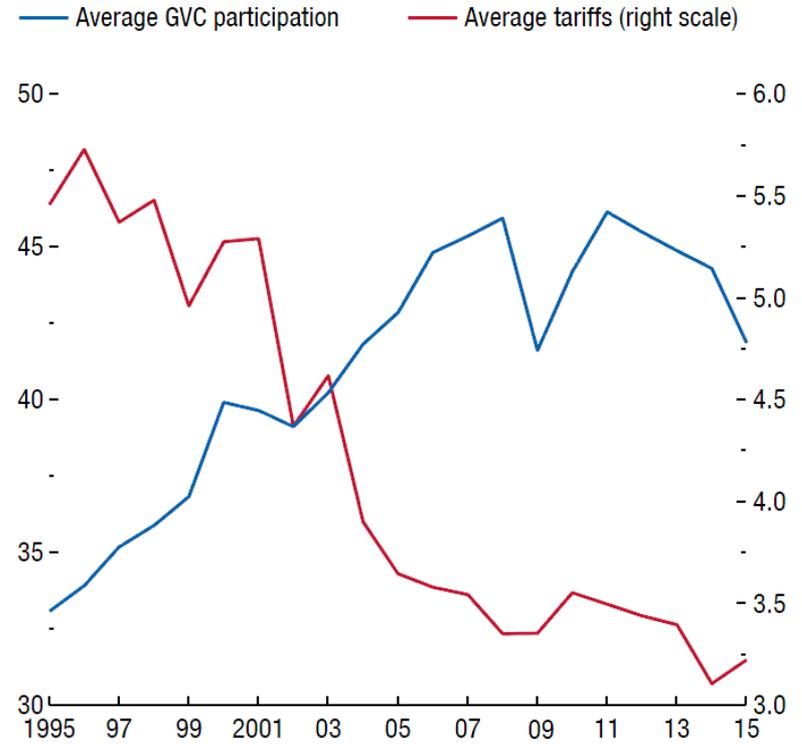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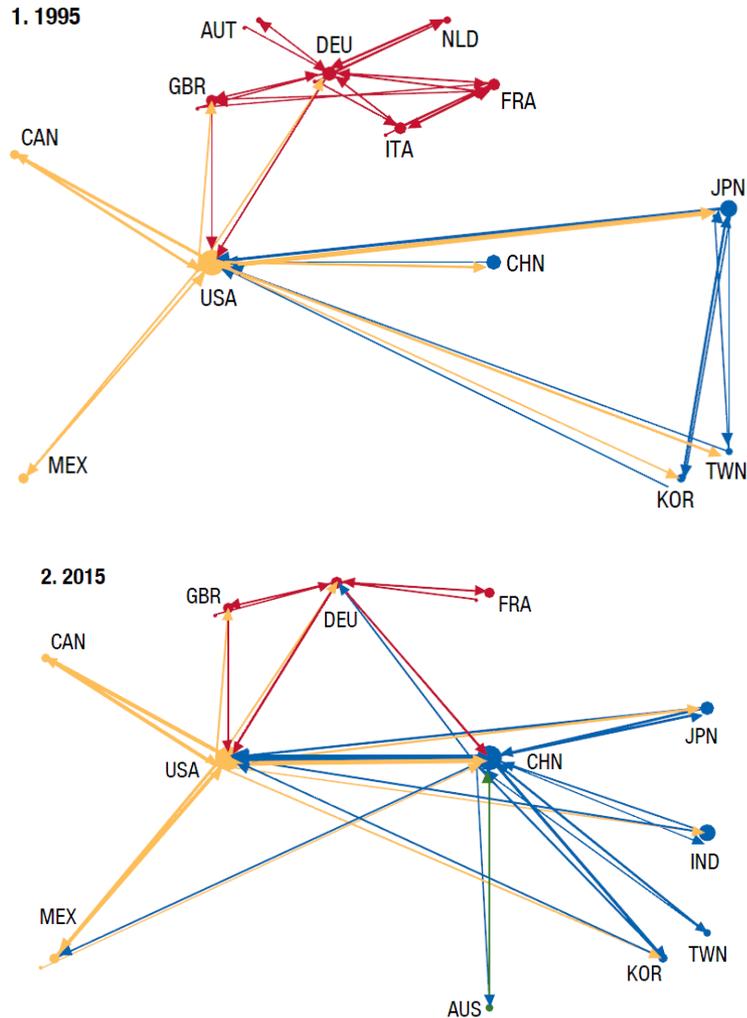
# 무역 갈등과 공급사슬 불확실성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송의영  
2020.06.

이 발표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의견이며 저자가 속한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과 무관함을 밝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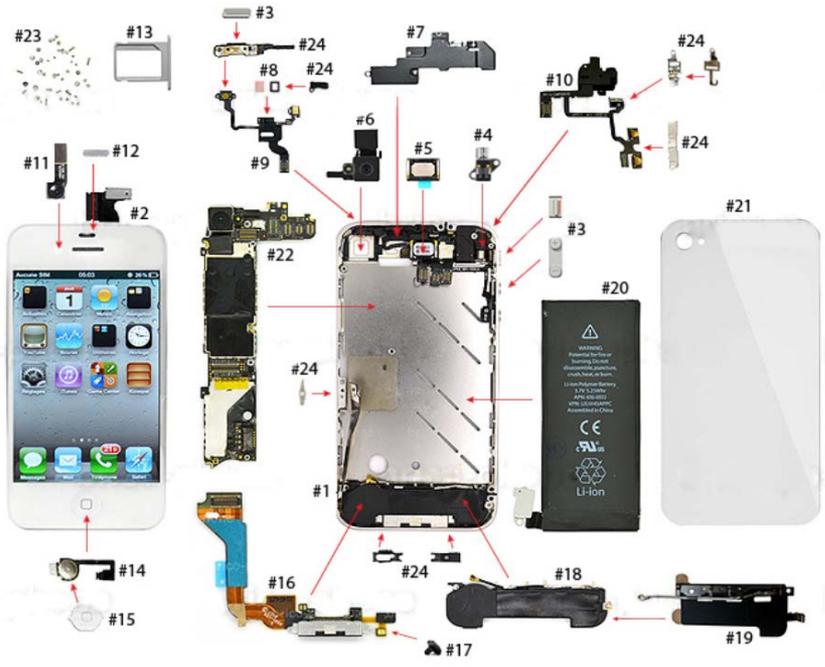
# 가 (Global Value Chains)



OECD Tiva, IMF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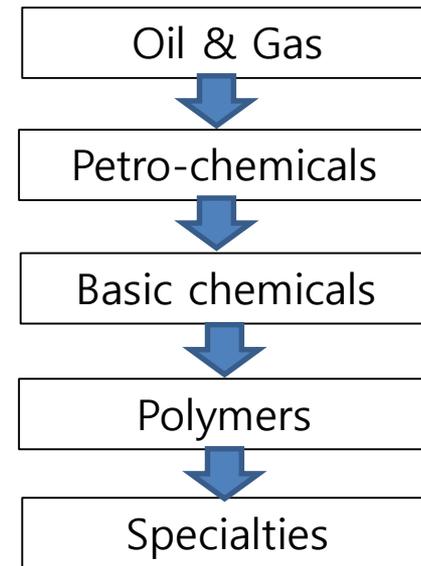
# 가 (GVC)= fragmentation

Spider 형 – iPhone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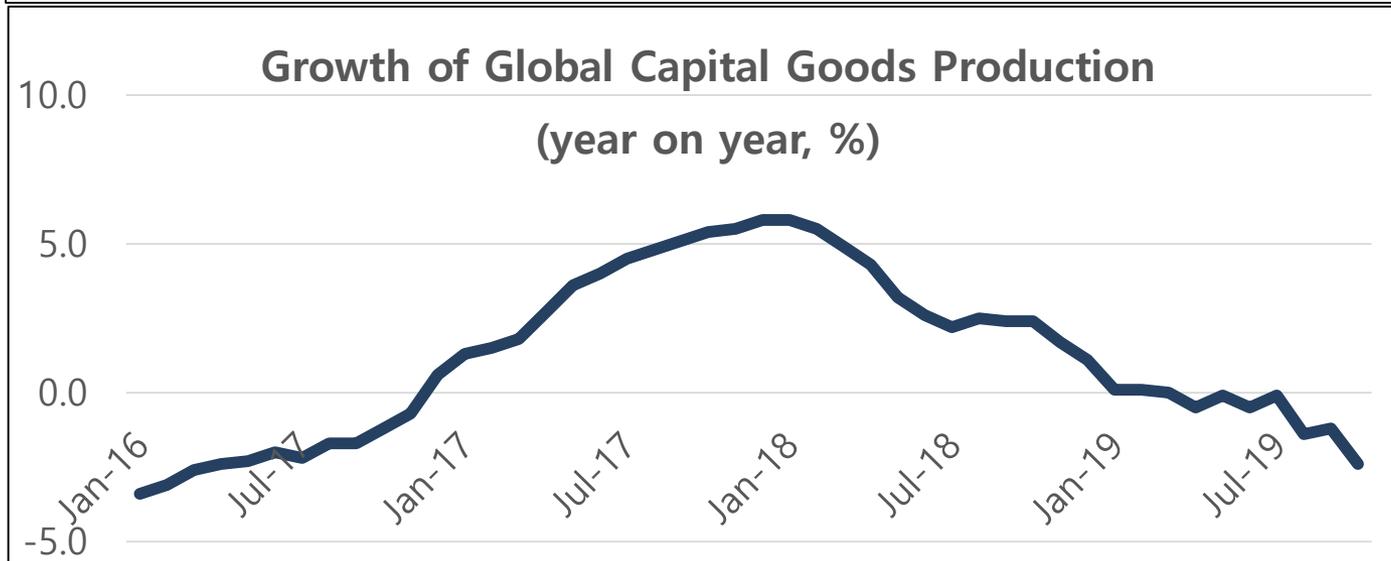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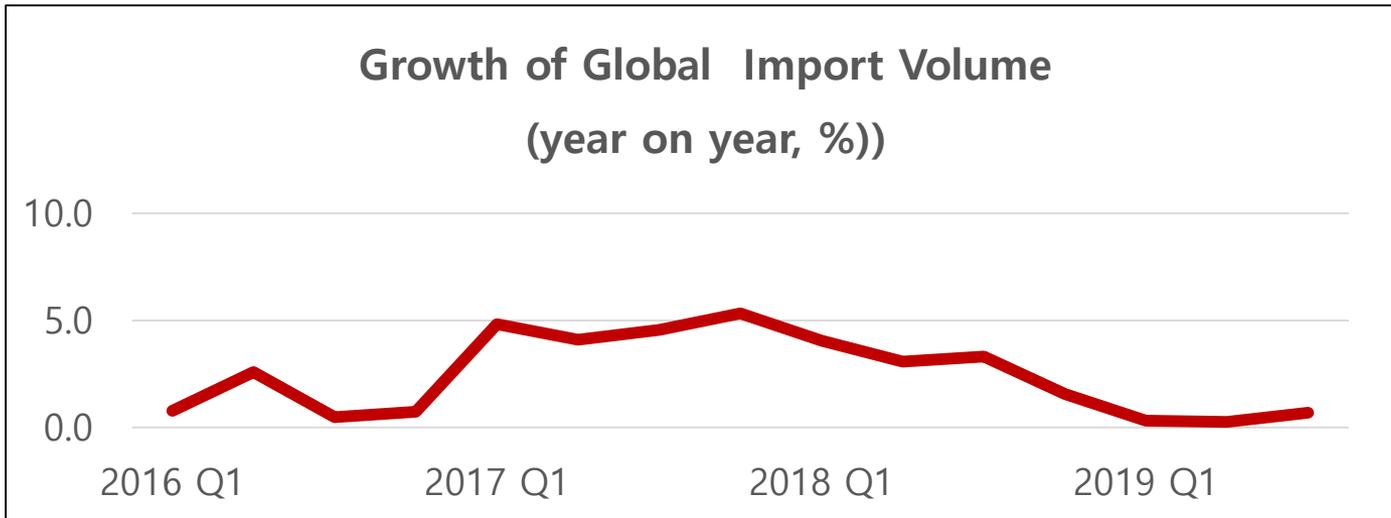


Dok Phon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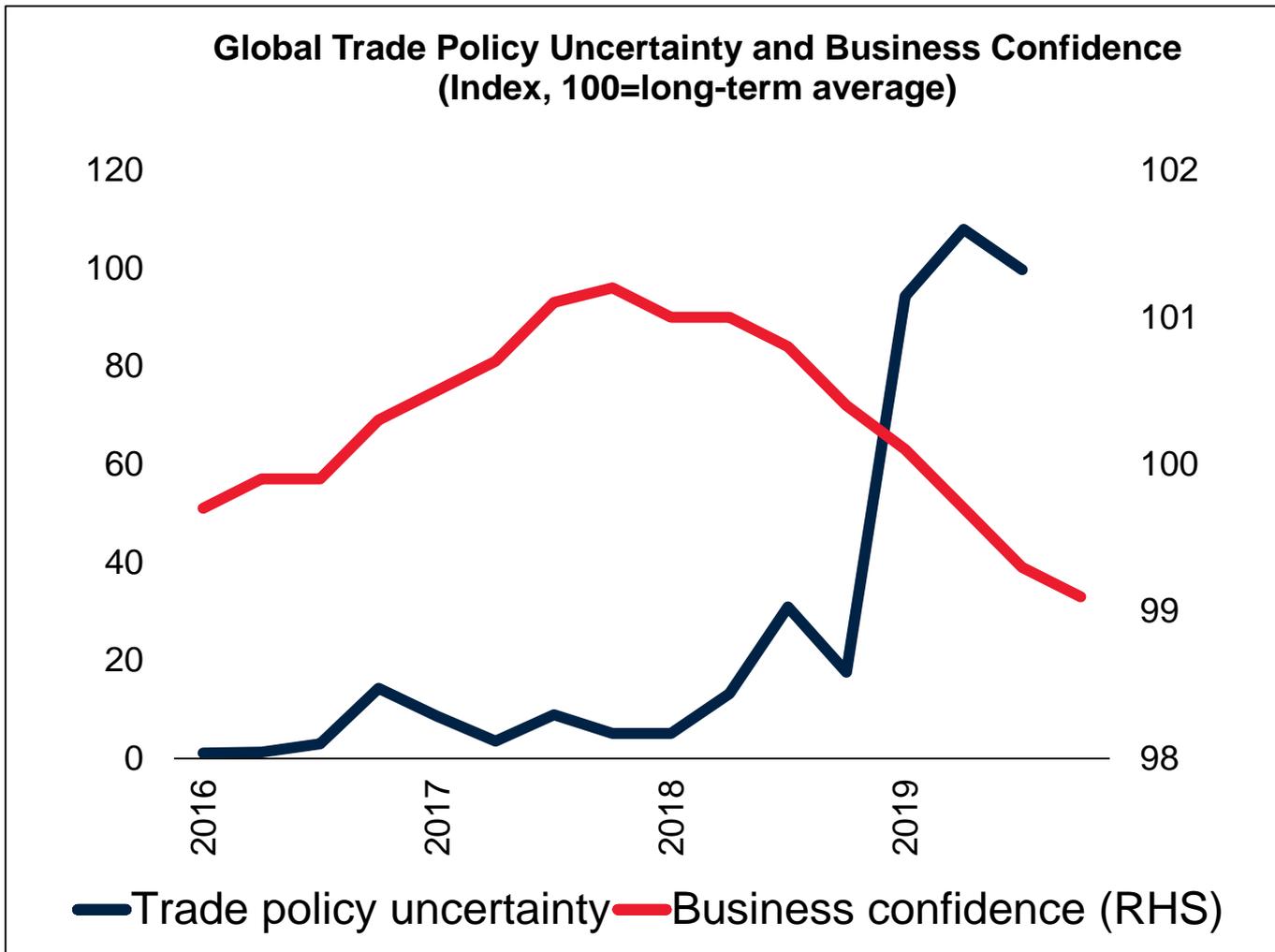
Snake 형 – Chemicals



- 중·미를 제외하면 가치사슬은 global하기보다는 regional(미, 독, 중)
- 수직적인 snake형 보다는 수평적인 spider형에 근접
- 세계 무역의 반 이상이 GVC를 통한(국경을 2회 이상 통과한) 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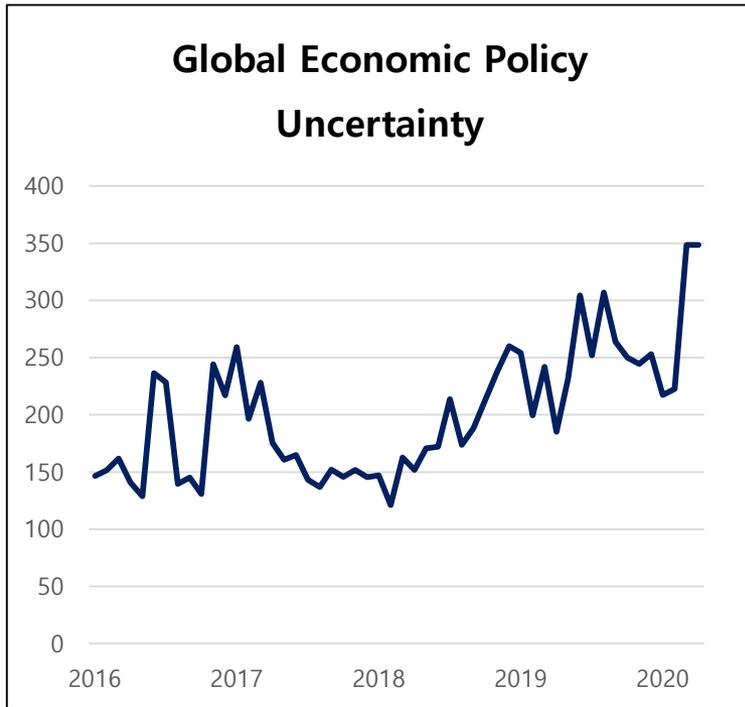
WTO Data, World bank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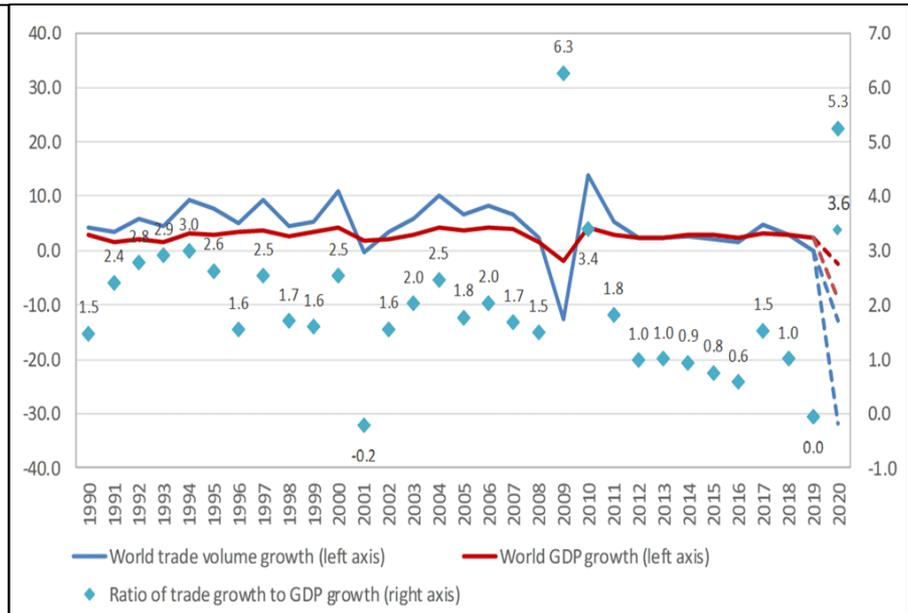
World bank (2020)

–worst timing

Economic Policy Uncertainty



WT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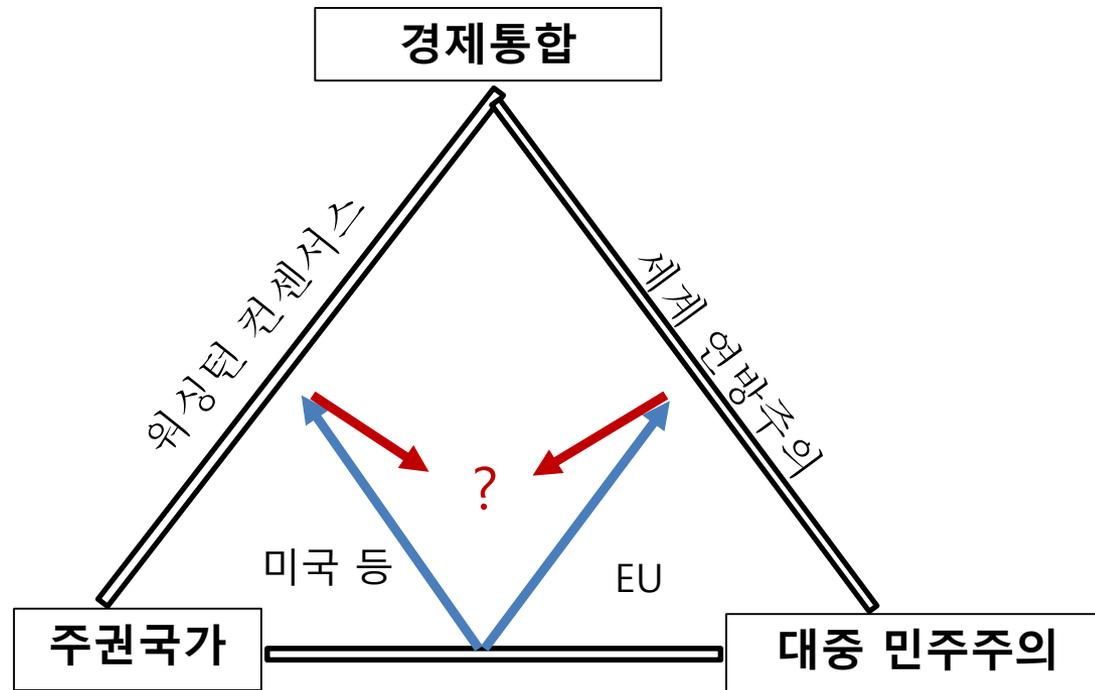


### 2020.1. 미-중 Phase One 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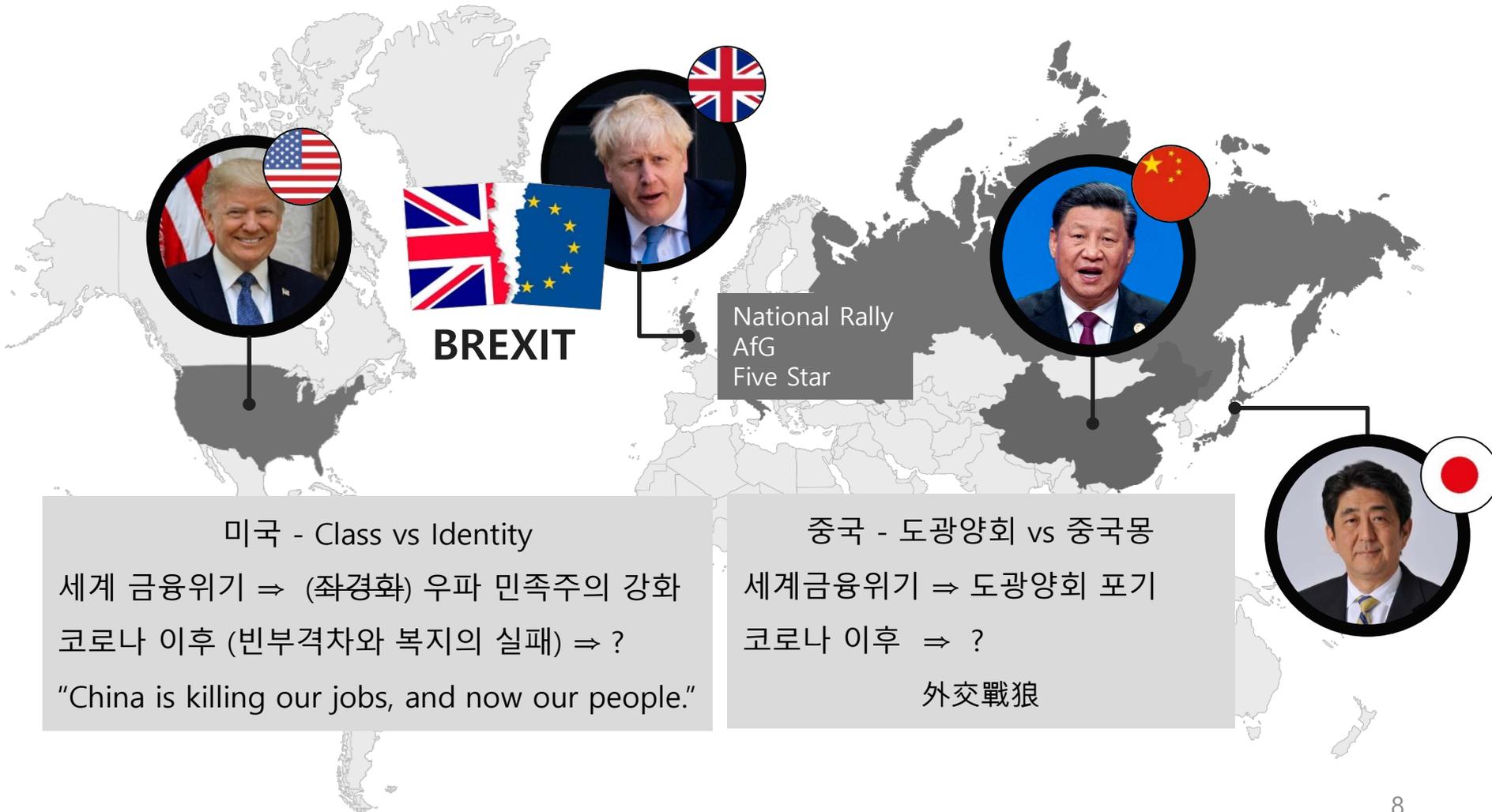
미: 관세 유지(25%, \$250 bil), 관세 인하(7.5%, \$125 bil), 관세 연기((\$160 bil)

중: 대미 수입확대(\$200 bil/2 yrs), 기술이전 강제 중지, 지적재산권 강화, 수입 개방

## Rodrik의 불가능한 삼위일체



# 백인 민족주의와 부국강병



규칙기반 >> 위협과 협상

정경분리 >> 정경일치

다자주의 >> 양자주의

2019.12.  
WTO 상소기구  
작동 중지

### 1. 전통 제조업 보호(미 무역법 232조)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FTA 재협상  
자동차 관세 위협  
백인 노동자 보호

### 2. 미-중 무역 전쟁(미 무역법 301조)

관세 전쟁  
중국의 불공정 무역과 투자 관행 시정 요구  
백인 노동자, 다국적 기업 보호

### 3. 미-중 기술패권 전쟁

첨단기술 수출제한  
첨단산업 투자제한  
불응 제3국 제재 및 보복  
대중국 매파 엘리트 만족

화웨이  
제재

# Decoupling?

---

- 최악 시나리오 - 신냉전

글로벌 공급 사슬이 친미 블록과 친중 블록으로 완전 분리

- 중간 시나리오

미국의 안보와 기술 패권 유지와 관련된 광범위한 부문에서 중국 분리

- 최소 시나리오

안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부문에서만 중국 분리

## Popular view

트럼프 무역정책의 궁극적 목적 =

중국의 산업 고도화 지연시켜 미국의 기술과 군사력 패권 연장

대중국 매파와 다국적 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에 따라 결정 될 것

# Decoupling?

---

## 미국

- 미국 기업의 중국 수출 규제 및 중국 기업 직접투자 제한
- 미국 기술과 장비 우회 수출 규제
- 동맹국 화웨이 5G 장비 구입 중지 압력 (보안장비, 클라우드, AI로 확대 움직임)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 (India-Pacific Strategy와 평행)
- 중국 기업의 NYSE 상장 조건 강화
- 공무원 연금 중국 투자 금지
- (중국에 코로나 배상금 부과하고 중국 보유 미국채 압수로 배상금 징수)
- (Primary and secondary 금융 sanctions)

## 중국 + $\alpha$

- 국산화 투자 증가 + 타국 기업과 협력 증대  
미국 기업, 미국 밖으로 생산 relocation  
중국 기업, 중국 밖으로 조립 공정 relocation
- 비미국산 설계 및 장비로 전환
- 일본, 호주, 캐나다 수용, 영국 거부했다 선회, 독일 중지 쪽으로
- 중국, 강력한 보복 예고
- 중국 기업 다른 거래소로 상장 이전
- 환율 인하 용인
- ?
- SWIFT 대체 시스템 개발

GTAP-based CGE simulation

미국 대중수입품 \$250 billion에 30%, \$300 billion에 15% 관세 부과, 중국 보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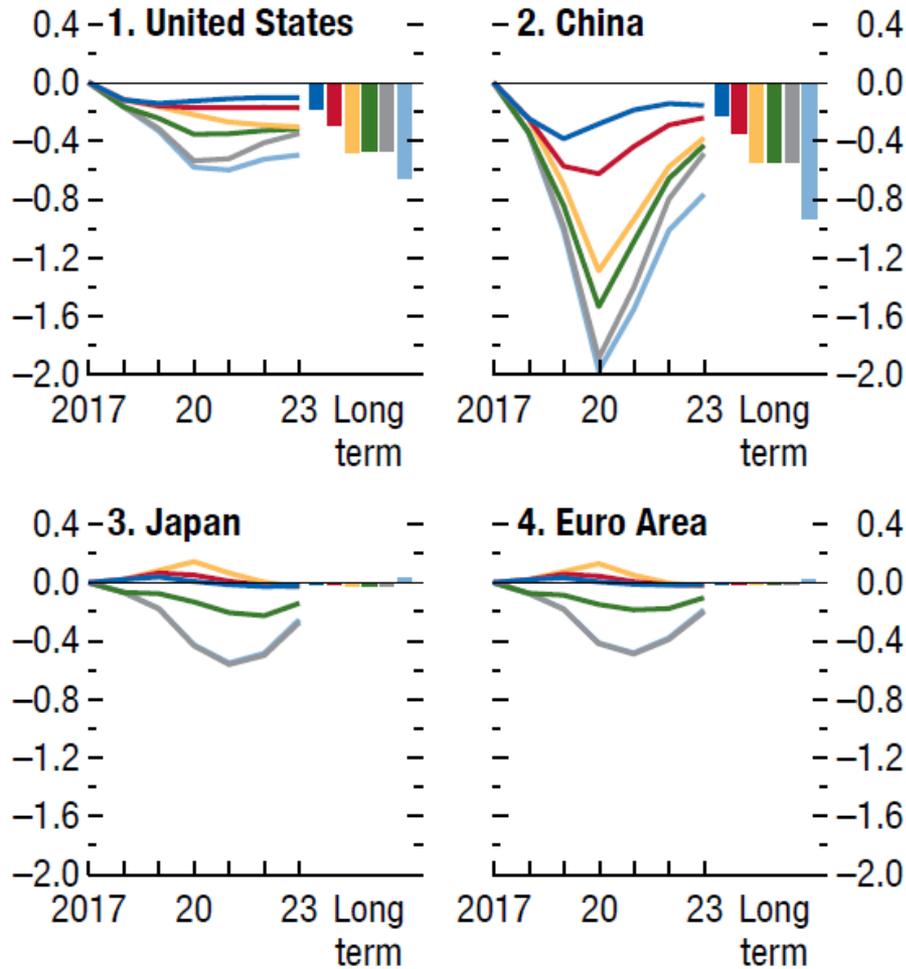
	GDP	Final demand	Terms of trade	Exchange rate
United States	-0.23	-0.21	-0.02	-0.33
Canada	-0.01	0.21	0.81	-1.15
Mexico	-0.09	0.39	1.57	-2.37
Europe	-0.01	0.04	0.11	0.06
China and Hong Kong	-0.34	-0.95	-1.98	4.09
Japan	-0.01	0.07	0.50	-0.27
South Korea	0.00	0.18	0.36	-0.15
Other high-income Asia	-0.01	0.08	0.22	0.02
Low-income Asia	-0.03	0.15	0.37	-0.19
Central America	-0.04	0.15	0.47	-0.75
Latin America	0.00	0.09	0.56	-0.65
India	-0.01	0.09	0.36	-0.29
Africa	0.01	0.12	0.31	-0.11
Russia	0.00	0.06	0.26	0.03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0.00	0.05	0.16	0.07
Other countries	0.00	0.10	0.25	-0.11

Robinson and Thierfelder (2019 a)

US Protects: 미국이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에 30% 관세 부과할 경우  
 Global Trade War: US Protects + 모든 국가 미국에 동일한 보복

	US Protects		Global Trade War	
	Final Demand	Terms of Trade	Final Demand	Terms of Trade
United States	0.60	5.02	-2.38	-17.41
Canada	-1.31	-4.20	1.53	7.58
Mexico	-1.65	-4.91	1.66	7.54
Europe	0.03	-0.05	0.59	1.46
China & HK	-0.17	-0.16	0.20	0.77
Japan	0.07	0.16	0.55	3.27
South Korea	0.04	0.14	1.79	3.20
Other High Income Asia	-0.57	-0.73	1.23	2.61
Low Income Asia	-0.19	-0.39	0.36	0.88
Central America	-0.57	-1.86	1.53	4.18
Latin America	-0.33	-1.50	0.34	2.43
India	0.37	0.32	0.09	0.82
Africa	-0.60	-1.77	-0.18	-0.45
Russia	-0.65	-1.01	0.14	0.16
MENA	-0.90	-1.40	0.25	0.56
Other countries	0.31	-0.20	-0.18	0.01

Robinson and Thierfelder (2019 b)



- Tariffs in April 2019 baseline
- Add tariffs implemented May 2019
- Add tariffs announced August 2019
- Add confidence effect
- Add market reaction
- Add productivity effect

tariffs August 2019  
 미국 대중수입품 \$250 billion에  
 30%, \$300 billion에 15% 관세 부과,  
 중국 보복

confidence effect  
 불확실성이 실물 투자에 미치는 효  
 과 고려

market reaction  
 무역전쟁이 기업 채권이자율에 미치  
 는 영향 고려

일본이 대한국 전기전자 수출액에 8.5%의 수출세를 부과할 경우

GTAP based CGE simulation

성한경(2019)

시나리오 2-1	2020~2024	2025~2029	2030~2034
한국	-0.0084	-0.0138	-0.0152
미국	0.0001	0.0003	0.0002
EU	0.0001	0.0002	0.0002
중국	0.0008	0.0013	0.0015
일본	-0.0032	-0.0060	-0.0071
ASEAN	0.0020	0.0035	0.0041

### 집계 무역 자료 기반 추론의 한계

- 무역 갈등이 거시-금융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포착 못함.
- 산업 분류가 충분히 세밀하지 못하다. (불화수소, 와이어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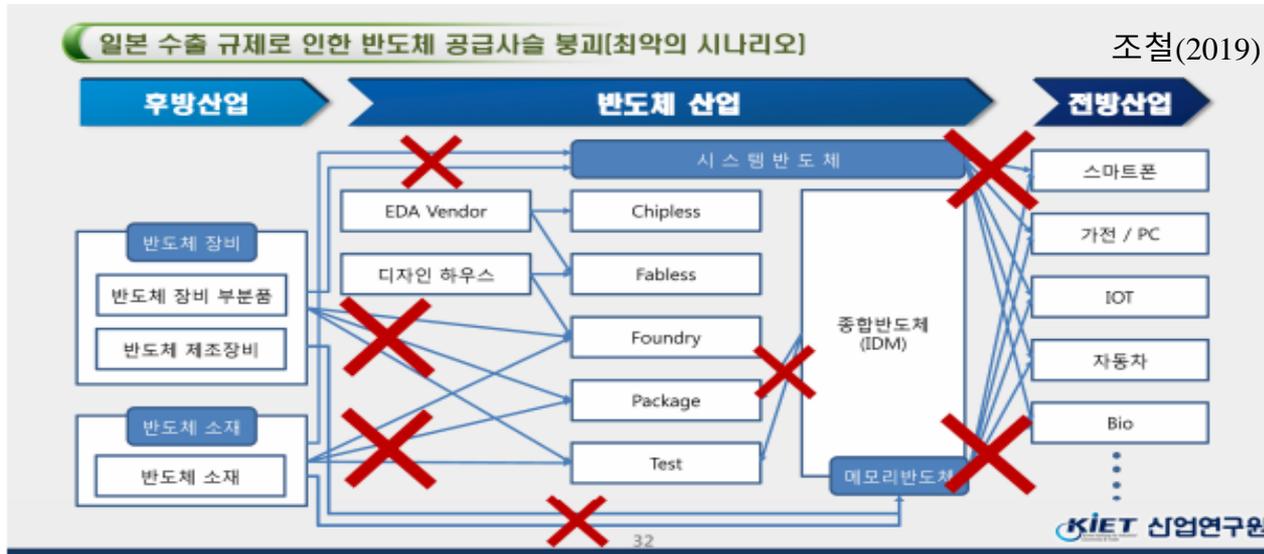
“가시 사슬로 연결된 중간재는 상호 매우 보완적이다.”

# 글로벌 공급 사슬 불확실성

---

## 공급 사슬 충격

1. 2008년 금융위기
  2. 기술 혁명(3D 컴퓨터, 로봇, AI) 가속화
  3. 일본 수출 규제
  4. 미-중 무역 갈등
  5. 코로나 19
- 역사적인 완성품 중심 성장 전략과 글로벌 공급 사슬의 안정성에 대한 과도한 믿음이 공급 사슬 불확실성에 대한 높은 노출 초래
  - 대응책?



### 후방 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책

- 재고 증가
- 공급자(상류 투자) 다국적화
- 공급자(상류 투자) 동맹국으로 이전
- 공급자(상류 투자) 내국화

### 전방 지정학적 불확실성 대책

- 수요자(하류 투자) 다국적화(복수 표준에 대응)
- 수요자(하류 투자) 동맹국으로 이전
- 수요자(하류 투자) 내국화

just in time ⇒ just in case?  
on-off production

# 공급 사슬 불확실성 대응 방향

---

## GVC 참여 구조 변환

우호적 국가와의 무역, 투자 확대  
(신남방, 신북방)  
국산화와 리쇼어링 지원  
(스마트 생산)

## 新다자주의 체제 설립에 적극 동참

유럽 등 유사 입장국과의 공조 확대  
FTA 확대

---

## 정치적 무역 간섭 및 보복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맞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통상,외교,안보,예산간 긴밀한 공조  
전략적 모호성 추구

## 무역의존도 축소

내수 수요 확대  
규제 완화, 디지털 화 통한 서비스 산업 혁신

# 글로벌 공급 사슬 불확실성 대응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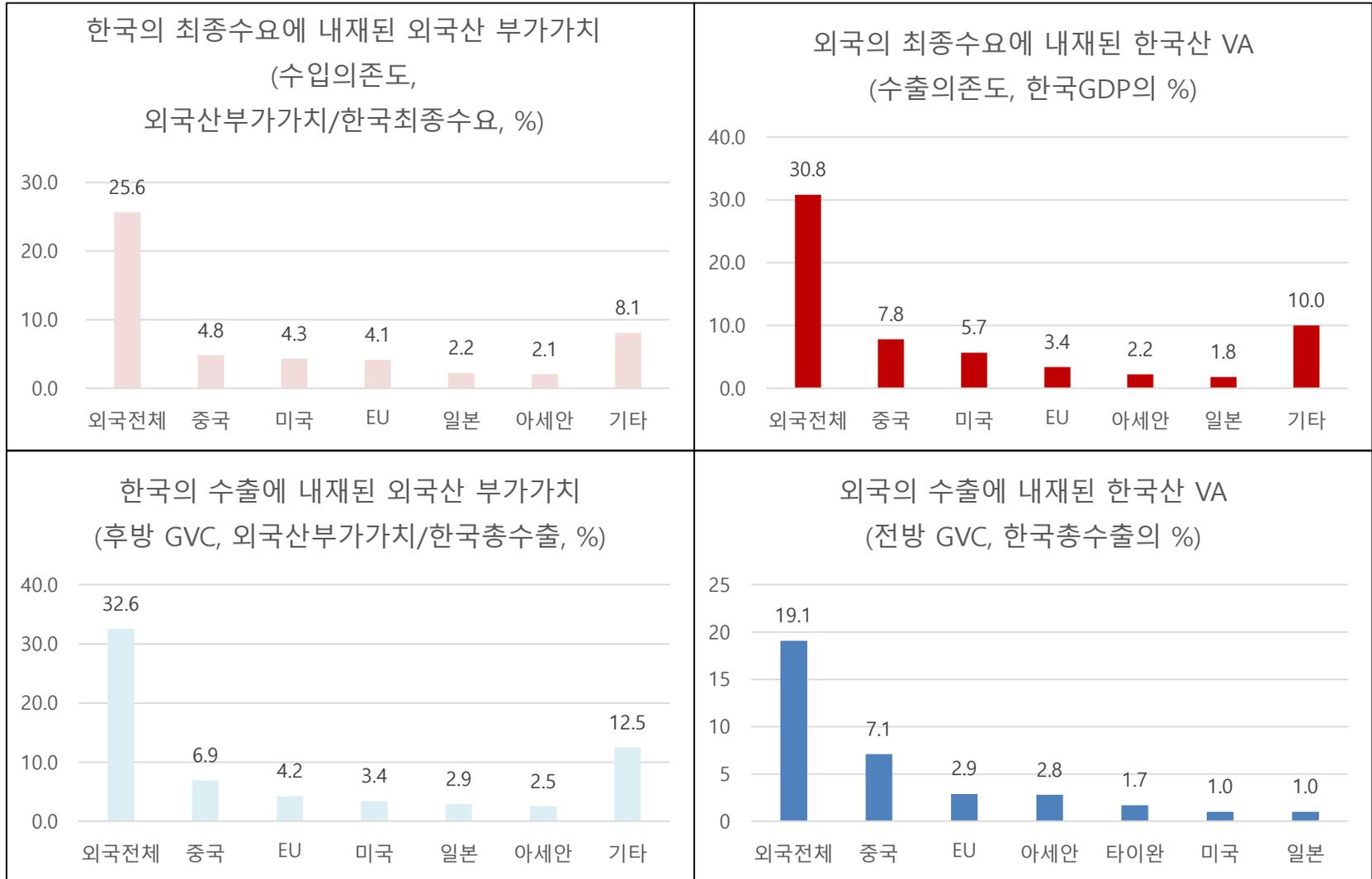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 대책 (2019.8)

- 소부장 산업에 R&D, 투자, M&A에 대한 정책금융, 세제지원, 규제완화, 인력 지원 집중

과제 및 추진기구	주요 내용
100 대 품목	20 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1 년 내 공급안정화)
조기 공급안정화	80 대 품목 공급안정화 대책(5 년 내 공급안정화)
산업경쟁력 강화	기업 간 협력모델 구축 지원
	기업 맞춤형 실증·양산 테스트베드 확충
	민간생산, 투자에 대한 금융, 인력 지원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 육성
추진체제	범정부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소재·부품특별법 상시법으로 전환
	강력한 규제특례 근거 확대

개별 품목 타겟팅, 공공 테스트베드, 중소기업-대기업, 대기업-대기업 기술 및 투자 협력

# 글로벌 가치사슬(한국,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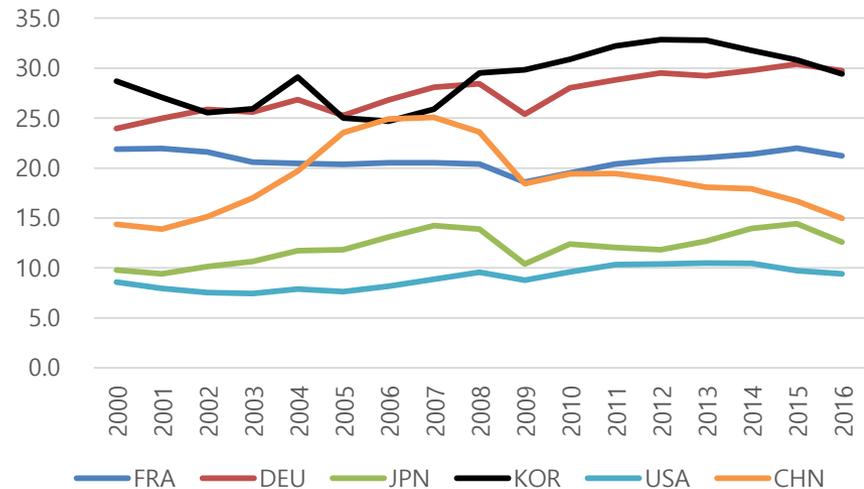


#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나?

Popular view

한국, 지나치게 무역의존적  
내수 중심의 성장 도모해야

GDP 중 외국에서 최종수요된 부분의  
비중  
(수출의존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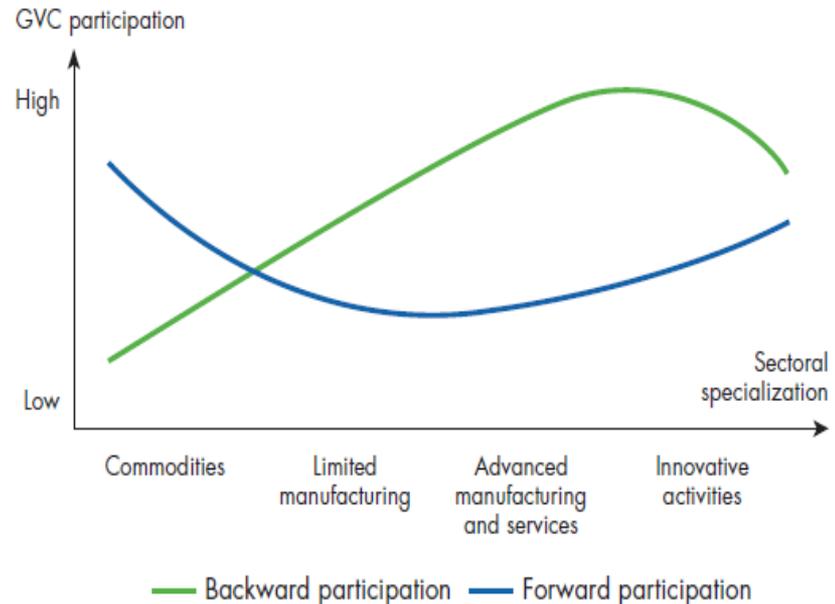
OECD, TiVA 2016, 2018

무역의존도는 국가의 크기(GDP)와 주변 국가의 크기(foreign market potential)에 민감

#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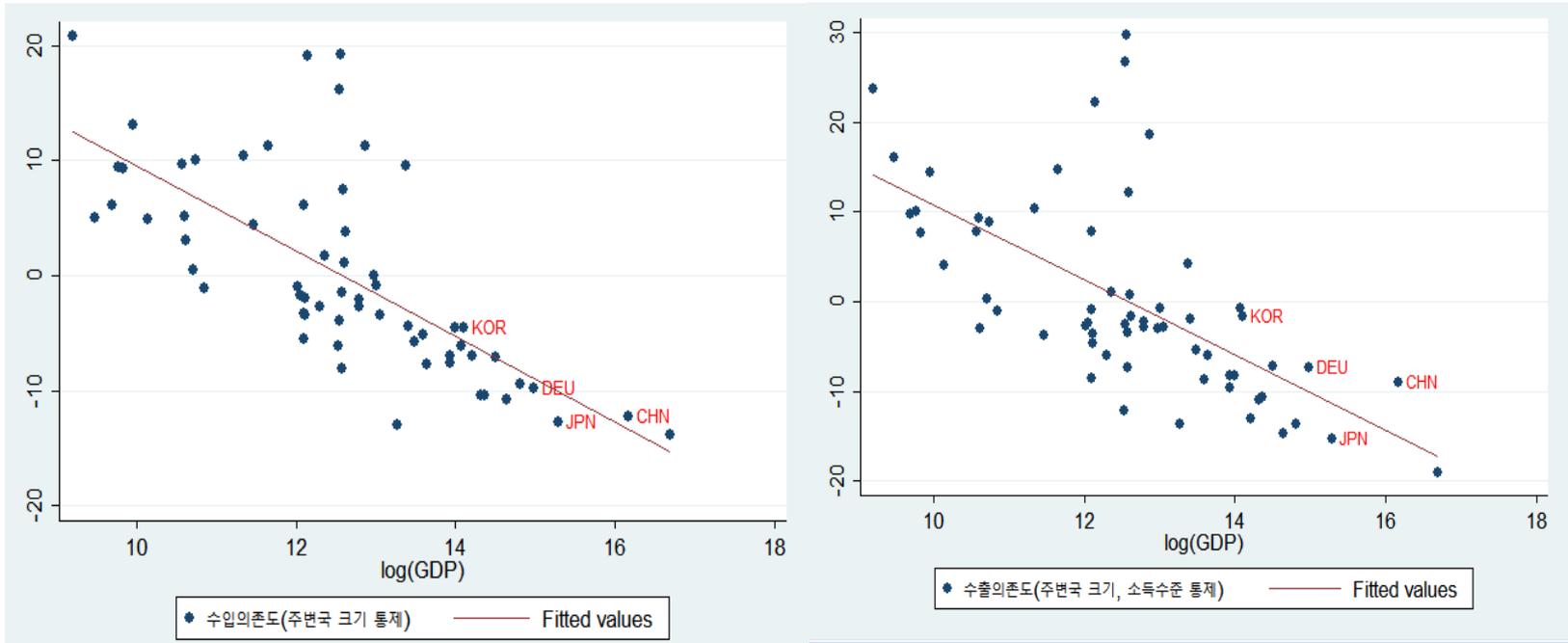
## Popular view

한국, 후방 GVC 의존도 축소하고,  
전방 GVC 참여도 강화해야



후방 GVC 참여도는 국가의 크기(-), 주변국 크기(+), 소득수준(+에 민감하고,  
전방 GCV 참여도는 천연자원(+과 자본-기술 풍부도(+에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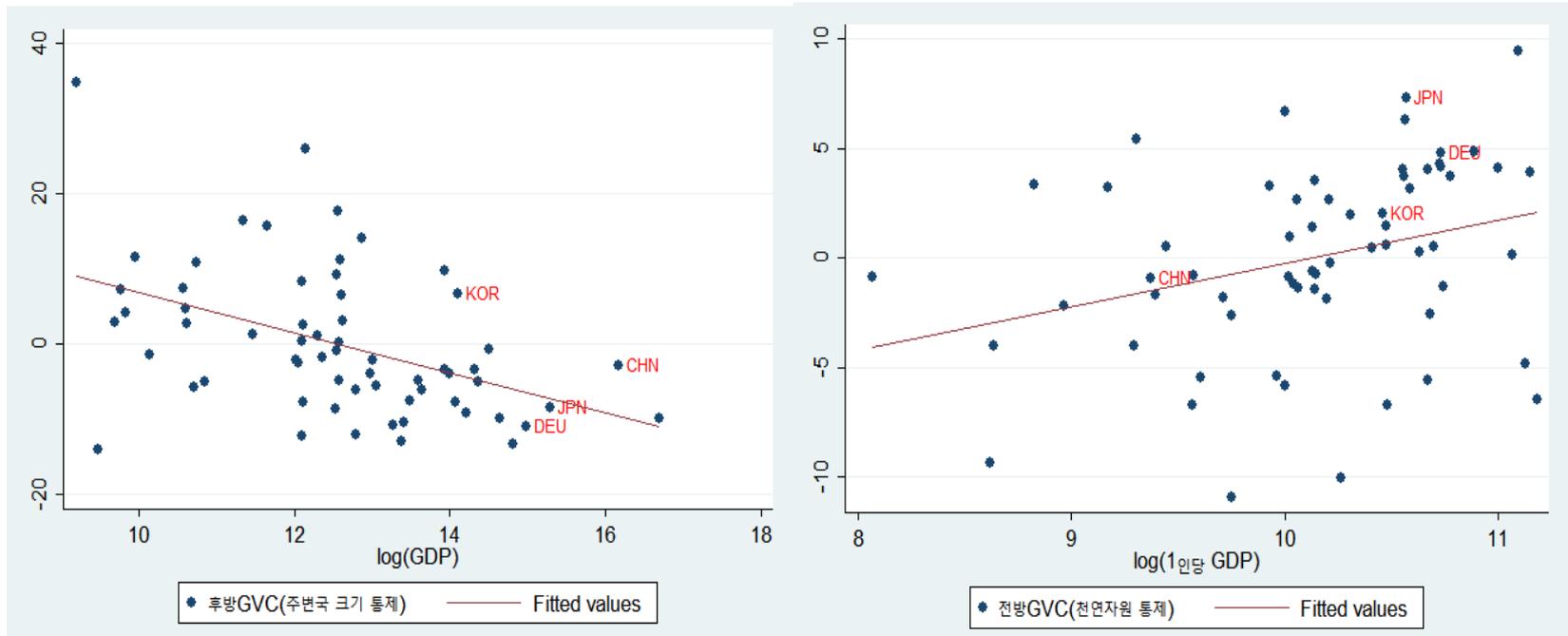
#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나?



OECD, TiVA 2018, 저자

한국, 수출의존도 높은 편이나 무역수지 흑자(7%) 때문

#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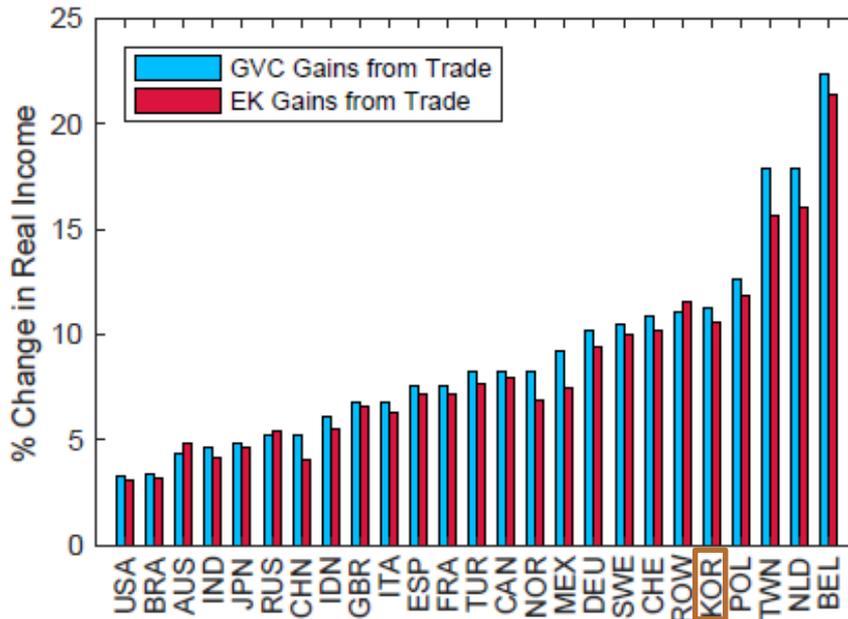
OECD, TiVA 2018, 저자 계산

한국, 후방 GVC 참여도 높고(중국 효과)

전방 GVC 참여도 평균이나, 독일, 일본에 비해 낮음.

# 한국 무역의존도 너무 높나?

Antras and Gotari (2017)



소국 경제, 자급자족으로 회귀할 때 큰 피해 ⇒ 개방 체제 최대한 유지

중국으로부터 수입 제한 ⇒ 물가 상승, 생산성 하락(수입 소스 전환으로 충격 최소화)

중국으로의 수출 제한 ⇒ 수출 급감, 수출 경쟁력 하락(중국 자리 선점으로 충격 최소화)

신기술 집약 공정은 계속 미, 유럽, 일본에 의존

# 시장 실패?

---

- 기업 GVC의 안정성에 대해 과신 했으나 이젠 위험 인지
- 대책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마련해야(supply chain management)

## 시장실패?

- 규모의 경제 하에서 coordination failures (big push, 외부경제)
  - lead firm이 존재할 때 문제 감소
  - 중소 기업과 노동, 공급사슬 충격에 취약
- Rodrik의 incomplete appropriability
  - 중소 기업 공동 개발 유도
- System risk(외부불경제) 관리
  - 의료, 안보, 산업 필수 품목
  - 전략적 상품과 산업의 선정에 신중해야

# Reshoring, near-shoring, re-offshoring?

---

- Reshoring (U턴 정책) 얼마나?
  - 한국의 대기업 직접투자 동기 대부분 소비자 접근성 제고
  - 수송의 비용과 위험 증가로 near-shoring 필요성 증가
  - 기업, 비용 절약에 더욱 민감해 질 것
  - reshoring 유도하기 위해선 강력한 인센티브 필요
- GVC에서 RVC(regional value chains)?
  - EU와 NAFTA 얘기
  - 아시아, fault line 바로 위에(RCEP, TPP?)
  - ASEAN으로의 re-offshoring

# 새로운 산업정책?

---

## 다자체제 붕괴?

---

- Trump
- WTO 분쟁해결 마비
- 수출과 투자 제한 확산
- 산업정책 강화  
(EU, 미국, 일본)

## 새로운 다자체제?

---

- 반덤핑, 보조금 관련 제소 증가
- 미국 뺀 새로운 상소 기구 추진
- 미국, EU, 일본 WTO 보조금 규제 강화 성명  
(유럽의 입장과 노력 미온적)

- 혁신 및 소부장 산업에 대한 금융, 세제 지원은 특정성 때문에 GATT 보조금 협정 위반 소지
- 선진국의 산업정책으로 생긴 공간 활용하면서 새로운 다자체제 확립에 적극 참여
- 무역 갈등, 코로나, 수출 규제는 모두 투자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충격  
⇒ 산업 정책에서 자본 시장의 역할 제고할 필요

# 전략적 모호성?

---

- 양자택일의 시점에서 어떻게?
- 안보의 개념 확장하고 적극적 산업정책 추구
- 안보 관련 무역과 투자 제도, 법령 정비  
보안검증 표준, 안전인증 책임제 도입
- EU와 공동 대응

